

축 사

金 舜 鏞 (대한병원협회장)



大韓看護 100號 發刊을 衷心으로 祝賀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여러분들과 우리 醫師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同苦同樂하면서 서로 理解하고 激勵하며 患者의 診療에 萬全을 期하려고 努力해온 同伴者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兄弟之間의 友誼와 團結로서 맺어진지 오래고 여러분의 눈부신 活躍에 接할때 마다 서슴치않고 拍手를 보내고 또 큰 자랑으로 여겨온 터입니다. 이제 貴協會의 機關誌인 大韓看護가 100號를 넘게되니 지난날의 溢路들과 苦衷을 아는 저희들은 그 꾸준하고 놀라운 努力에 眞心으로 敬意를 表하며 前途를 祝福해 마지 않습니다. 학술전문지(學術專問誌)란 그 影響力이 公器이기 때문에 전

문직 단체 및 社會에 寄與하는 힘이 큰 것이 事實입니다만 「誤報하거나 歪曲된 지식전달」의 境遇에 미치는 害 또한 至大합니다. 그렇기에 학술전문지의 責任은 그 무엇보다도 무겁고 그것의 使命은 그 어느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런 中에서도 貴誌와 같은 機關誌는 專門誌가 지녀야 하는 特殊性 때문에 더욱 그 編輯과 發刊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훌륭히 해내고 이제 빛나는 100號를 發刊하게 된 貴誌는 當然히 칭송과 激勵을 받아 마땅합니다」 10년이던 江山도 變한다는 俗談도 있는데 25년이 경과하여 100이라는 數字를 헤아리게된 貴誌야말로 虛弱할 수도 있었던 與件에 태어난 乳兒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精誠으로」 이제 堂堂한 優良兒로 자라났음을 뜻함일 것입니다」 견잡을 수 없이 變하고 發展하는 現代 醫療社會에 있어서 看護員이 차지하는 醫療의 比重은 漸次 늘어만가고 이는 看護員의 重要性을 뜻함과 同時에 그 責任의 莫重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科學分野가 그러하듯이 看護學分野에 있어서도 專門化와 細分化가 加速되고 있으며 科學的이 아닌 看護는 存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破産을 했을 때는 다시 致富를 할 수도 있고 機械를 破損시켰을 때는 修理를 하거나 더 좋은 機械를 製作해 낼 수도 있으며 그 被害는 失手を 지지른 當事者가 입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醫療人의 失手로 死亡한 患者는 再生이 不可能한 絕對的인 것일 뿐 아니라 그 被害는 失手한 醫療人에 돌아가지 않고 그를 믿고 찾아간 患者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醫療人들은 不注意에 의한 失手나 怠慢에 의한 無知가 容納될 수 없고 恒常 最高의 狀態에서 最善의 準備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를 爲해서 貴誌는 恒常會員들에게 使命感을 鼓吹시키고 學問에 對한 熱意를 일깨워줘야 하며 說教만이 아닌 事例들을 公關하고 講義만이 아닌 實務를 紹介함으로써 恒常 새롭고 살아 있는 教育을 하도록 힘써어하는 것이 貴誌가 지니는 特性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機械化되고 人情이 메마르고 機械化文明의 自己增殖이 人間을 機械의 예속物化 하려드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確固한 精神的인 基盤위에서 科學的인 看護를 試圖하는 것이야말로 眞情한 全人看護일 것입니다. 競爭이 極甚한 現社會에 있어서 團結없는 團體는 生存할 수 없으며 貴誌는 會員들의 願하는 바를 把握하고 貴會의 政策을 弘報하고 또한 간호전문지식을 나눔으로써 會員相互間의 團結과 理解를 增進하는 데 注力하고 與件의 差異가 크고 環境이 相違한 여러 會員들의 一絲不亂한 團結과 協同은 貴誌가 피하여야할 課題입니다. 끝으로 貴誌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萬福을 祈願합니다.